



포항 선수들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이 끝나고 열린 시상식에서 셀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팀 관찮냐”고 묻자 “어렵지만 노력 중”

손흥민, 찰스3세 영국 국왕 만나

세계 “토요일이나”고 되묻자 손흥민은 “일요일이다”라고 답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아 ‘캡틴’ 손흥민과 만나 대화했다.



이러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나 찰스 3세의 질문에 손흥민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찰스 3세는 “현재 팀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도 물었고 손흥민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해 손흥민(왼쪽)과 만났다. 로이터-연합뉴스

그(EPL) 토트넘과 미국프로풋볼(NFL)이 후원하는 지역 아동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토트넘을 찾았다.

고 답변했다. 이에 찰스 3세는 “그런가”라며 손흥민과 눈을 맞추고 다시 멋쩍은 듯한 웃음을 내었다.

영상을 보면 찰스 3세는 손흥민을 만나 먼저 오른손을 내밀었고,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다. 찰스 3세가 “이번 주말에 경기를 하나”고 물었고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한다”고 답했다. 찰스 3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토트넘은 리그 컵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토너먼트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등 침체된 상태다. 다만 찰스 3세가 이런 팀 사정을 알고 손흥민과 문답을 나눴는지는 불분명하다.

호날두 작년 하루에 10억 벌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사진)가 전 세계 스포츠 선수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스포츠비즈니스매체스포티포가 13일 발표한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해 2억6000만 달러(약 3779억 원)를 벌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나스르에서 뛰는 호날두는 2023년에는 2억7천 500만 달러로 2024년에 비해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2024년 수입을 하위치로 계산하면 대략 10억 원 정도가 된다. 올해 수입 2위는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미국)로 1억5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위는 1억4700만 달러를 번 권투 선수 타이슨 푸리(영국)가 차지했고, 4위는 축구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대우받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1억3500만 달러가 이름을 올렸다.



축구의 봄 힘찬 ‘휘슬’... 11개월 열전



2025시즌 프로축구 K리그가 15일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무려 ‘11개월’의 열전에 들어간다.



내일 포항 vs 대전 공식 개막전... 역대 가장 이른 키오프 ACLE·클럽월드컵·E-1챔피언십 등 줄이어 시즌 길어질

프로축구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개막하는 시즌이다. 종전엔 카타르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는 터라 2월19일에 시작한 2022시즌이 가장 이른 시즌이었다. 이번엔 그때보다 4일이나 빠르게 ‘황파르’를 울린다. 개막일이 당겨지면서 시즌은 길어졌다.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 계획으로는 K리그1과 K리그2(2부) 최종 라운드는 각각 11월 29일과 23일에, 시즌 마지막 경기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은 12월7일에 열린다. 늦겨울에 시작해 초겨울에 끝나는 ‘대장정’을 펼치게 된 건 올 시즌 유난히 많은 국제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4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토너먼트의 8강부터 결승까지 경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다. 6월에는 울산 HD가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이 미국에

서 열리고, 7월에 국내파 선수 위주의 국가대표팀이 나설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치러진다. 지난 시즌 K리그1과 코리아컵 챔피언십 공식 개막전에서 대결하는 ‘전통’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국제대회 때문이다. K리그1 디펜딩챔피언 울산과 코리아컵 우승팀 포항 스틸러스의 ACLE 경기 일정 상 양 팀이 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공평한 휴식 시간을 누릴 수 없는 터라 두 구단의 대결이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포항과 대전의 ‘황선홍 데비’가 개막전이 됐다. 박태하 감독이 지휘하는 포항과 포항 출신 레전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이 15일 오후 1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우승 후보로는 K리그1 4연패에 도전하는 울산과 전 포지션에 걸쳐 ‘폭풍 영입’한 FC 서울이 꼽힌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주포로 활약하던 주민규를 대전하나시티즌으로 보냈으나 국가대표 출신 풀백 윤종규, 장신 스트라이커 허을, 2선 공격수 이희균,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미드필더 라카바 등을 영입했다. ‘글로벌 스타’ 제시 린가드가 간재한 서울은 공격수 문선민과 미드필더 정승원, 리그 최고 풀백 김진수 등을 영입하며 전 포지션에 걸쳐 전력을 증강했다. 서울 팬들은 지난 시즌 서울을 5년 만에 파이널A로 진출시킨 김기동 감독이 이번엔 9년 만의 우승을 이뤄내 주길 기대한다. 하창래, 임종은 등을 데려가며 서울 못잖게 전력을 보강한 대전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령탑 출신의 가스 포엣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전북, 전통의 명가 포항 등이 ACLE, 챔피언스리그2(ACL2) 출전권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의 장신

스트라이커 콤파뇨를 영입해 최전방의 무게감만큼은 울산 서울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은중 감독 지휘 아래 지난 시즌 5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수원FC, 정경호 감독 체제로 새 출발 하는 지난 시즌 준우승팀 강원FC는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구단 사상 첫 승격을 이룬 FC안양의 잔류 여부는 우승 경쟁 못잖은 관전 포인트다. FC안양은 2004년 안양을 연고로 한 LG 치타스가 서울로 옮겨 FC서울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지역 축구팀을 잃은 안양 팬들이 시민구단 창단을 주도한 것을 계기로 창단됐다. 서울과 안양의 ‘연고이전 데비’는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라운드 경기로 키오프한다. K리그1과 K리그2 간 승강 방식은 지난 시즌과 같다. K리그1 12위 팀은 그대로 강등되고, K리그2 1위 팀은 곧바로 승격된다. K리그1 11위 팀은 K리그2 2위 팀과, K리그1 10위 팀은 K리그2 3~5위 간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PO를 치러 1부 잔류냐, 2부 강등이냐를 결정한다. 스키아데일리 연합뉴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